

지역과 서울의 행복한 상생을 향해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상생상회'에서는 전국 각지 중소 농가의 우수 농특산물을 모아 소개한다. 상생상회를 운영하는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와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은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 상생 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지방)과 서울의 균형 있는 공존 및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유재홍 기획운영팀장 · 조혜원 단장 · 유미정 자원관리홍보팀장,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장희송 상생협력팀장,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이현 경영지원팀장 · 명승욱 상생상회운영팀장,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이영섭 주무관

서로 연결하고 함께 나아가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는 아주 특별한 식료품 매장이 있다. 서울시가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및 교류를 위해 설립한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 및 홍보 공간 '상생상회'다. 일반 마트에서 보기 힘든 전국 중소 농가의 우수 상품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180개 지역 688개 업체에서 생산한 특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 중이다.

서울시는 도농 간 교류 촉진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6년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조직하고, 2018년 상생상회를 설립했다. 현재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에서는 36가지 지역 상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생상회 매장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을 지역상생교류사업단(위탁 운영)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자치구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매칭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지원하는 '상생공동체' 사업이 있다. 관이 아닌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과 농어촌 간 양극화 및 불균형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인 당면 과제입니다.”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 상생협력팀 장희송 팀장은 지역 상생 교류 사업의 목적에 대해 도농 간 교류를 통한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 나아가 서울과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상생이라 설명했다.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는 총 68개 자치단체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적 교류 사업으로는 '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과 '서울농장' 등이 있다. 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은 서울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경제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한다. 또 서울농장은 농촌 문화 체험, 귀농·귀촌 정보 교류 등 도농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물적 교류 사업으로는 상생상회 외에도 지역의 생산자와 서울의 소비자 간 직거래를 지원하는 '농부의 시장', '서울장터' 등이 있다.



전국 8도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생상회

믿을 수 있는 도심 속 지역 장터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 사업의 핵심 플랫폼 중 하나인 상생상회는 지역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판로를 지원하고, 서울 소비자에게는 믿을 만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조혜원 단장은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생상회의 입점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분에 늘 특색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으로 매장이 채워지고 있다.

“분기별로 입점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실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했거나 가족농, 청년 창업농 등 스토리가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상품은 일반 매장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상생상회에 입점되며, 백화점·홈쇼핑 등 대형 유통 채널의 팝업 상회나 온라인 채널의 상설 판매, 테마 기획전, 소핑 라이브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된다. 유통 인구가 많은 터미널이나 역사 내 판매, 해외 유통 판로 기회도 제공된다. 또 시즌별로 매장 내에서 설 선물 기획전, 봄 산나물 판매 특별전 등 이슈에 맞는 정기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상생상회는 입점 상품에 대해 고객 반응을 살피고 일상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패키지나 위생, 마케팅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한다.



건강한 식재료와 맛있는 정보가 가득한 상생상회

맛있는 만남과 교류의 공간

상생상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먹거리 관련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는 맛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상생상회 1층이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지하 1층은 교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역 자원 전시 공간과 공유 주방, 공유 공간 등이 자리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평소에는 이곳에서 지역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 상생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들의 세미나가 열린다. 그 외 귀농·귀촌 정보나 지역 관광 정보도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을 지향하는 ‘서로맛남’과 금요일 점심에 반짝 열리는 식당인 ‘금요미식회’가 있다. 서로맛남은 지역의 생산자와 요리사, 시민이 만나는 지역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시민이 직접 만들어 더욱 특별한 서로맛남이 진행됐다. 지난해 상생상회 레시피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민 요리사를 직접 초대해 레시피 개발 배경 및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요리를 시연해보는 시간이었다. 상생상회 제품과 지역의 식재료를 결합해 만든 시민들의 레시피는 향후 책으로 엮어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금요미식회는 지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상생 요리사들의 팝업 레스토랑으로, 유명 셰프와 요리 연구가 등이 시즌에 맞는 지역 특산물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시민에게 선보인다.

올해 상생상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위한 신규 콘텐츠도 새롭게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상생경제과 장희송 팀장은 상생상회와 지역 상생 교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유통 및 판로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지역 농어민은 갈수록 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와 상생상회는 비대면 판로를 넓히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기획전을 진행해 지역과 서울, 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각종 체험과 전시가 이뤄지는 상생상회 지하 1층

글 전하영 사진 장은주

한양도성 순성길 따라 걷는 역사 도시 서울

가장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인 도시 서울에서 역사의 순간을 오롯이 만끽하고 싶다면 한양도성을 따라 걸어보자.
한양도성 순성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시원한 풍경과 온화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양도성

천만 도시 서울을 품은 한양도성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높은 건축물 사이로 돌을 쌓아 만든 도성을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한양도성이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동대문에서도, 고층 건물이 밀집한 남대문에서도 한양도성은 사람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600년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할 당시 지었다.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경계이자 왕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외세의 침략을 막기도 했으나 방어 시설로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1369년 완공된 이래로 일제가 침략하기 전인 1910년까지 도성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흥인지문·돈의문·송례문·숙정문)과 4소문(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이 있으며,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로, 현재는 순성길이 여섯 구간으로 구분돼 있어 구간별로 나눠 걷기 좋다. 순성길을 걸을 때면 성벽을 이루고 있는 성돌을 유심히 살펴보자. 축성 시기별로 돌 모양과 축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성돌에는 당시의 기록도 남아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축성 기법과 성곽 구조를 계승한 한양도성에서는 조선 시대 성벽 축조 기술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백악(북악산), 낙타(낙산), 목멱(남산), 인왕 등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을 따라 산성과 평지성을 함께 쌓는 방식으로 지었으며 성곽 내부에 궁궐, 종묘, 사직과 행정 시설, 거주지 등을 포함하는 한국만의 도성 체계와 축조 방식을 보여준다. 서울의 지형을 고려한 축조 방식에서 자연을 존중하는 선인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양도성은 내사산 능선을 따라 쌓았기 때문에 자연을 해치지 않으며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뛰어난 도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유적지로도 가치가 높다.



계절의 풍경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

도성 따라 꽃길 따라, 한양도성 순성길 6구간

한양도성 순성길은 내사산을 중심으로 한 백악·낙산·남산(목멱산)·인왕산 구간과 도심을 가르는 흥인지문·송례문 구간 등 총 여섯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난코스인 백악구간은 인왕산과 백악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창의문에서 출발해 백악(북악산, 342m)을 걷는 구간이다.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성곽이 쌓여 있는데, 걷기엔 다소 숨이 차지만 한양도성 전체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한양도성 북대문인 숙정문과 삼청공원을 지나면 대학로 뒤로 이어진 낙산구간에 도달한다. 혜화문에서 시작해 낙산공원과 흥인지문까지 이르는데, 흥인지문공원에는 한양도성박물관도 있어 방문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 이 밖에도 흥인지문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체육관에 이르는 흥인지문구간, 장충체육관부터 남산타워, 백범광장에 이르는 남산(목멱산)구간, 백범광장에서 송례문, 소의문 터와 돈의문 터까지 이르는 송례문구간, 돈의문 터에서 시작해 인왕산 순성길을 지나 창의문에 이르는 인왕산구간이 있다. 한양도성 순성길의 매력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이다. 숲길에서 조용한 주택가로 이어지며, 금세 변화한 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사산에서는 사대문 안 도심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흥인지문과 송례문 등 사대문과 사소문이 위치한 구간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어우러짐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가족·친구들과 걷는 재미, 보는 재미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든 행사와 체험이 중단됐지만, 매년 순성길을 따라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며 해설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간마다 잠시 쉬어 가는 구간에는 스탬프가 마련돼 있는데, 한양도성을 완주하고 스탬프 4개를 모두 받으면 완주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순성길을 따라 걷다 만나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

[한양도성 순성길 6구간]

▪ 백악구간

창의문-숙정문-말바위 안내소-와룡공원-혜화문

▪ 낙산구간

혜화문-낙산공원-한양도성박물관-동대문성곽공원-흥인지문

▪ 흥인지문구간

흥인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광희문-장충체육관

▪ 남산(목멱산)구간

장충체육관-나무계단길-N서울타워-백범광장

▪ 승례문구간

백범광장-승례문-소의문 터-정동-돈의문 터

▪ 인왕산구간

돈의문 터-월암근린공원-인왕산 순성길-창의문



부담 없이 걷기 좋은 낙산구간 산책로

추천 코스 1. 언제 걸어도 좋은 낙산구간

대학로와 가까운 낙산구간은 인근 주민과 대학생들의 산책로로 사랑받는 공간이다. 혜화문에서 시작해 낙산공원과 이화마을, 한양도성박물관, 흥인지문공원, 흥인지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야트막한 낙산을 올라 다시 흥인지문까지 내려가는 코스다. 서울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은 높이 124m로 내사산 중 가장 낮으며,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부담 없이 걷기 좋다. 낙산공원 정상에서는 N서울타워와 종로 일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 노을이 지는 늦은 오후와 도심에 불빛이 켜지는 밤이 특히 아름답다.

낙산공원에서 나오면 도성 안쪽에 형성된 작은 마을, 이화마을에 다다른다. 이곳은 조선 시대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도성 내 5대 명소 중 한 곳으로, 해방 후에는 국민주택단지 조성된 지역이자 2000년대 들어서 노후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예술 캠페인이 진행된 곳이다.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집집마다 시간의 흔적이 역력하다. 웅기종기 처마를 맞댄 집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구불구불 골목길 등 지금은 보기 힘든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오래된 주택과 좁은 골목 사이로 아기자기한 벽화와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을 정상에는 옛 가옥을 개조한 카페, 공방, 갤러리 등이 들어서 있다.

이화마을에서 흥인지문까지는 내리막길이다.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한양도성박물관에 다다른다. 박물관이 들어선 건물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동대문병원 일부를 철거하고 세운 서울디자인지원센터로, 건물 앞으로는 흥인지문공원이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좋다.



좁고 아기자기한 이화마을 골목길

*** 추천 맛집_개뿔**

성곽길을 오르며 다리가 지쳤다면 이화마을 정상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개뿔’에서 잠시 피로를 풀자. 한양도성 바로 안쪽에 자리한 개뿔은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루프톱 카페로, 지난해 방영했던 드라마 <남자친구> 마지막 회에 등장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더욱 늘었다. 1950년대 지은 국민주택을 개조해 2층 카페로 레노베이션했는데, 카페 내부에 들어서면 빼격거리는 마룻바닥과 나무 창틀이 건물의 나이를 짐작케 한다. 야외 테라스에서는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맥주 한잔하기 좋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일품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1길 26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8시 50분, 금요일 · 주말 오전 9시 30분~오후 9시 50분

메뉴 아메리카노 5,000원, 오미자에이드 7,000원, 당근케이크 6,000원

문의 02-765-2019



전망 좋은 낙산공원 카페 개뿔

추천 코스 2.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곳, 흥인지문구간

한양도성의 동쪽 문, 일명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에서 시작하는 구간으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광희문, 장충체육관까지 거리 약 1.8km, 한 시간 남짓 걸린다.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동대문시장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코스다.

과거에는 동대문운동장이 위치했던 근현대 한국 스포츠의 메카로, 2007년 안전상의 이유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던 중 유물이 대거 발굴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흥인지문 일대는 조선 후기 훈련도감의 별영인 하도감과 화약 제조 관서인 염초청이 있던 자리이자, 도성 안에서도 지대가 낮아 성안의 물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 수문으로 빠져나간 곳이었다. 철거 당시 동대문운동장 관중석 밑에 매몰돼 있던 이간수문이 발굴돼 현재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으며, 방어 시설물인 치성(雉城)과 하도감으로 추정되는 건물 유구 등이 현재 공원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1925년에 건축한 동대문운동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어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너편이자 한양도성 동남쪽에는 사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이 있다. 광희문은 시체가 나가던 문이라 하여 시구문(屍口門)이라 불렀는데, 그런 까닭에 조선 시대 백성들은 이 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광희문 성벽을 따라 장충동 주택가로 들어서면 한양도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1930년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문화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도성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주택을 신축하면서 성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한양도성은 남산(목멱산)구간이 시작되는 장충체육관 뒷길부터 다시금 이어진다. 성벽을 유심히 보면 천자문의 글자가 새겨진 성돌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축성구간을 표시하거나 축성을 담당한 지방, 책임 관리자 등을 표시한 것이다. 이 구간의 성돌에 새겨진 ‘생(生) 자와 ‘곤(崧)’ 자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쌓은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과 현대의 풍경이 공존하는 흥인지문구간

*** 추천 맛집_와글와글족발**

해가 낚낚이 질 무렵이면 흥인지문공원 뒤편 창신동 족발 거리에는 술 한 잔, 고기 한 점 고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인다. 북적이는 골목에서도 항상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곳이 ‘와글와글족발’이다. 이름 그대로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회포를 푸는 이곳은 1975년 문을 연 이후 45년 넘게 푸짐한 족발을 선보이고 있다. 하루 세 번 삶아내는 족발을 당일 판매하며, 한번 삶은 족발은 다시 냉장고에 넣지 않는 것이 이 집만의 철칙이다. 그 덕분에 살코기는 부드럽고 껍질은 쫄깃하다. 다른 족발집과 다른 점은 막국수가 없다는 것. 대신 이곳만의 별미인 야채비빔밥이 존재한다. 양푼 가득 담은 밥과 함께 부추무침, 무생채 등이 담겨 나오는데 열심히 비비다 보면 절로 군침이 넘어가 손가락질을 멈추기 힘들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길 18

영업시간 오후 3시~11시(일요일 휴무)

메뉴 족발 3만4,000원(대)·2만8,000원(중), 야채비빔밥 4000원

문의 02-765-0319



동대문 근처의 오랜 맛집, 와글와글족발

글 전미희 사진 장은주

포근함을 엮어간다

라탄공예(등공예) 체험

이국적인 휴양지를 떠오르게 하는 시원한 매력과 동시에, 공간을 아늑하게 채우는 따뜻한 분위기를 함께 지닌 '라탄(rattan)'. 내 손으로 직접 엮은 라탄 줄기가 멋진 소품으로 탄생하는 소소한 기쁨을 만나보자.



견고하고 부드러운 등나무의 매력

최근 라탄 조명갓, 화분 커버, 트레이, 거울 등 다양한 라탄 소재의 제품들이 감성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소품들을 취미 삼아 직접 만들어보려는 사람들도 늘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라탄공예를 배워볼 수 있는 곳도 많아졌다. 2시간가량의 원데이 클래스만으로도 누구나 기본적인 소품들을 완성할 수 있으며, 취미반을 통해 더 다양한 기법을 배워볼 수도 있다.

라탄공예는 동남아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천연 등나무 줄기를 엮어 여러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예로, 등공예라 부르기도 한다. 짚과 풀을 꼬아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 짚풀공예와도 비슷하다. 접착제나 다른 인공적인 재료 없이 등나무 줄기를 엮고 자르는 과정만으로 물건을 완성할 수 있어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 친화적이다.

등나무는 다채로운 매력과 강점을 동시에 지닌 소재다. 부드럽고 유연해 다양한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 데다, 그 완성품은 가볍고도 견고하다. 또한, 라탄 제품은 통기성이 우수해 여름용품으로 적합하면서도 은은하고 포근한 색감 때문에 봄·가을이나 겨울에도 모두 어울린다.



초심자도 OK! 라탄 바구니 만들기

라탄공예 입문자가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품에는 원형 또는 타원형 바구니, 티 코스터 등이 있다.

이 중 적당한 크기의 라탄 원형 바구니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바구니는 바닥 부분까지 모두 라탄으로 엮어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초심자의 경우 코팅된 원형 합판을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다.

라탄공예의 기본적인 재료는 등나무 줄기를 길게 가공해 뽑아낸 2mm 둘레의 환심, 공예용 가위와 송곳, 줄자, 그리고 분무기와 물이다. 여기에 일정 간격으로 타공한 원형 합판을 추가로 준비했다. 이제 차분한 마음가짐만 갖추면 준비는 완벽하다.

작업 전, 단단한 환심을 물에 5~10분 정도 담가두면 라탄이 유연해져 공예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탄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엮고 휘는 과정에서 부러져버릴 수 있으므로 만드는 중간중간 분무기로 계속해서 물을 뿌려줘야 한다. 환심이 적당히 물을 머금었다면 일정한 길이(약 35cm)로 잘라 바구니의 기둥이 될 부분을 준비해준다. 세로로 뼈대를 세울 기둥 부분을 '날대'라 하고, 가로로 엮어갈 몸통 부분을 '사릿대'라 한다.



춤춤하게 엮어가는 즐거움

먼저 일정하게 잘라둔 날대를 원형 합판의 구멍에 꽂아 기둥을 세워준다. 한쪽 날대 끝을 하나의 구멍에 꽂고, 반대쪽 날대 끝은 바로 옆 구멍에 꽂아 같은 길이로 쭉 뽑아 세워주면 된다.

다음은 바구니의 몸통을 만드는 막 엮기 단계다. 긴 사릿대를 준비한 후 맨 아래쪽부터 날대 사이사이로 사릿대를 앞, 뒤 번갈아 가며 끼워준다. 날대가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휘지 않도록 일정하게 모양을 잡아가며 엮어주면 반듯한 몸통을 만들 수 있다. 라탄이 마르지 않도록 틈틈이 물을 뿌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한 바퀴, 두 바퀴 꼼꼼하게 엮어가다 사릿대 길이가 부족하면 바구니 안쪽에서부터 새로운 사릿대로 그대로 이어가면 된다. 서너 바퀴쯤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바구니의 윤곽이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몸통 높이가 4cm 정도가 되면 윗부분 테두리를 엮어줄 차례다. 우선 바깥쪽 매듭을 만들기 위해 날대 세 쌍을 교차해가며 엮어준다. 한 바퀴가 완성되면 안쪽에서도 한 번 더 동그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헛갈릴 수 있으나 강사님의 설명을 따라 차분히 엮다 보면 어느새 머리를 땀땀 매듭이 손에 익게 된다. 마지막 매듭까지 자리를 찾아 끼워주면 바구니의 모습이 완성된다. 마지막 부분이 들어갈 자리가 넉넉하지 않다면 공예용 송곳으로 살짝 틈을 벌려준다. 바구니 안쪽에 길게 빠져나온 끝부분들은 공예용 가위로 짧게 잘라 마무리해준다.

완성된 라탄 바구니는 하루 정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바짝 말린 후 사용하는 게 좋다. 완성 후 오일 마감을 해주면 변형 없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오일 마감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은은하게 색이 바래 더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므로 취향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한눈에 보는 원형 바구니 제작 과정

- ① 뽀뽀한 라탄 줄기에 물 적시기
- ② 합판 구멍에 일정 길이의 날대 꽂기
- ③ 막 엮기(몸통 만들기)
- ④ 테두리 엮기
- ⑤ 바구니 안쪽의 날대 끝부분 정리하기



Mini Interview

라탄공예로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힐링하세요!

“라탄공예의 매력은 복잡한 일상의 잡념으로부터 벗어나 잠시 동안 오롯이 작업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작업의 반복이다 보니 생각을 비우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취미를 찾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분들이 공방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멋스러운 천연 소재인 등나무로부터 힐링을 얻고 싶으시다면 라탄공예에 도전해보세요.”

- 위민지 스테이라탄 대표

글 전하영 사진 장은주

옛 정취와 예술의 향기가 함께 머무는 곳

전국의 문화마을과 예술 거리를 찾아

어느 마을, 어느 거리에도 그곳만의 이야기가 있다.

지역이 간직한 기억과 문화적 상상력이 만나면 예술이 된다.

자꾸만 거리를 걷고 싶어지는 호사로운 계절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옛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시선 둘 곳을 추천한다.

짧지만 '진 이바구'가 깃든 거리 대구 근대문화골목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구 중구는 사실상 버려진 도심이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은 공동화됐고, 거리에는 사람의 발길이 줄었다. 구도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대구시는 스토리텔링에 착안했다. 2007년, 근대 역사 자원이 밀집한 구도심에 근대문화골목을 조성하고 골목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첫해 3,000명에 불과하던 방문객이 2019년에는 8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명소가 됐다.

대구 중구 골목 투어 코스는 총 다섯 코스가 있다. 그중 2코스인 근대문화골목이 가장 인기가 높다. 청라언덕(동산 선교사 주택) > 3·1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서상돈 고택,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 뽕나무골목 > 김원일의 마당깊은집 > 대구 구 교남 YMCA 회관 > 예코한방웰빙체험관 > 제일교회 역사관 >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 영남대로 > 종로 > 진골목 > 화교협회(소학교)로 이어지는 2코스는 1.6km의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구간마다 한 시대를 살아간 인물과 역사적 사건이 '진 이바구(긴 이야기)'를 품고 밀도 높게 펼쳐진다.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일원

한국의 마추픽추가 된 달동네의 사연 부산 감천문화마을



사실 감천동 달동네야말로 가장 부산다운 곳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갑자기 밀려든 피란민들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판잣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이 동네의 기원이다. 갑작스레 임시 수도 역할을 하게 된 부산의 번두리에 터를 잡은 외지인들은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며 어느덧 토박이가 되었다. 그러나 토박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집이 늘면서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09년, 마을을 살려보자는 주민과 지역 예술가, 행정기관이 협력해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프로젝트’를 시작해 예술 작품 10여 점을 설치하면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피란민의 삶의 흔적과 산자락 아래 자리한 파스텔 톤 계단식 주택,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등 마을 특유의 자원에 골목골목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과 갤러리 등 문화적 재생을 가미해 ‘한국의 마추픽추’, ‘지방 없는 미술관’으로 거듭났다. 연간 3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일원

옛 골목 구석구석 스며든 예술과 문화 서울 예술통



예술통은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 역사적 · 문화적 배경을 더해 재창조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서울시 중구 필동과 남산골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뿐 아니라 음식,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통섭을 통해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판을 추구한다. 정체된 도심지에 누구나, 언제나 문턱 없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동네를 만들자는 작은 생각이 도심 재생 프로젝트 ‘스트리트 뮤지엄’으로 발전했다. 모퉁이, 우물, 이음, 골목길, 등지, 사변삼각, 비비비비벽, 컨테이너 등 8개의 스트리트 뮤지엄이 골목 구석구석에서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조선 시대 교육기관 남부학당 터에 다시 세운 남학당에서는 명사들의 문화 예술 담론을 공유하고, 3층 규모의 작은 공연장 코쿰홀에서는 음악, 무용, 퍼포먼스, 영화 시사회, 파티 등의 콜라보를 즐길 수 있다. 예술통 삼거리를 중심으로 담벼락, 전신주 아래, 건물 외벽, 작은 궁터 등 골목에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작품 30여 점을 감상하고, 길거리 곳곳에 자리한 13개의 마이크로 뮤지엄에서는 미디어 작품을 보며 삭막한 도시에서 작게나마 숨 쉴 틈을 발견한다.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골목 축제가 열려 옛 도심에 새로운 골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 일원

예술인 창조와 교류의 공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항 내항 인근에 위치한 인천아트플랫폼은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의 특성을 살려 문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인천시가 2000년부터 원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다. 개항기인 1888년에 지은 구(舊) 일본우선주식회사 건물과 1930년대에 지은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창작 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13개 동을 지난 2009년 정식 개관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다. 이곳에 거주하는 작가를 중심으로 전시·공연·교육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개하며, 예술가들과 시민이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문화 발신지로서 창조적 에너지를 생산해나가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뤄져 있고, 인천근대박물관을 비롯해 차이나타운이 가까이 있어 근대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다.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일원

꿈꾸는 예술인들의 공동체 마을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경기도 최북단 파주시에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은 다양한 문화 예술가가 문화 예술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이룬 공동체 마을이다.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약 49만6,000m²(15만 평)의 땅에 많은 문화 예술인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 문화 예술 공간을 짓고 살고 있다. 그래서 발길 닿는 곳,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헤이리예술마을의 건축물은 마을 자체 건축 지침에 따라 조화롭게 건축되어 마을 자체가 건축 전시장이 되었고, 그 사이를 신경조직처럼 우리 나무와 꽃으로 꾸민 녹지 네트워크가 연결한다. 산과 구름, 냇, 개천 등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 마을이기도 하다.

미술, 음악, 연극, 영상, 사진, 조각, 공예, 문학, 출판,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380여 명이 거주하며 교류를 통한 창조적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이곳은 주거뿐 아니라 전시 공간과 공연 공간, 축제 공간, 교육 공간, 수익 공간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 문화 예술을 제공하고 함께 향유하는 가장 성공적인 순환 모델로 꼽힌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글 이정훈 **사진** 대구시 중구청, 부산시청, 재단법인 명석, 인천문화재단, 헤이리예술마을

무기력을 없애고 일상을 가꾸는 힘!

일상력 챌린지

코로나로 인해 일과 생활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기력하다면 다시 일상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자.
작지만 좋은 습관으로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를 쌓아갈 수 있는 '일상력 챌린지'를 추천한다.



하루 만 보 걷기, 새벽 기상하기... 일상력 챌린지 열풍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6시간 동안 집중해 글을 쓴다. 하루 200자 원고지 20매씩 쓰기는 그가 4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다. 애플 CEO 팀쿡은 매일 오전 3시 45분에 일어나 운동을 한 후 회사에 출근한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규칙적인 일상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성공한 명사들에게는 거창한 목표 대신 일상을 꾸준히 반복해 나가는 힘이 있다. 최근 이러한 루틴 형성하기가 MZ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일상력 챌린지라 불린다.

일상력이란 일상을 가꾸는 힘이라는 뜻으로, 지키고 싶은 행동 양식을 정해 습관처럼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이라는 뜻의 '루틴', 매일 치르는 의식인 '리추얼'과도 비슷하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하루 한 번 하늘 보기, 매일 아침 유산균 먹기와 같이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규칙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SNS에 자신의 일상력을 기록하거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챌린지를 함께할 모임원을 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일상력 챌린지가 퍼지면서 '챌린저스', '카카오프로젝트100' 등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2018년 11월 론칭한 습관 형성 플랫폼 '챌린저스'는 지난해 이후 사용자 수가 급증했으며 지난 3월 기준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 누적 참가 건수 200만 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일상이 곧 도전이다, 사소한 성취의 의미

규칙적인 일상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아침형 인간, 명사들의 습관이라는 이름 등으로 불려왔는데 지금 다시 일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사태는 평범한 우리 일상을 크게 뒤흔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일과 생활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 늦잠 자는 날이 많아졌고, 직장인들은 종일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일상이 달라지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규칙적인 일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즉, 일상력 챌린지는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기초 작업이다. 사소한 규칙을 만들어 조금씩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자기계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일상력 챌린지로 인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이들도 생겼다.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자존감이 낮아진 MZ세대는 일상력 챌린지를 통해 매일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적립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매일 무언가 실천함으로써 일상을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뿌듯함도 느낄 수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를 이루는 방법

1. 쉬운 목표를 세우고 매일 지켜 나간다

<해빗>의 저자이자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인 웬디 우드는 습관이란 “특정 신호에 대한 자동화된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휘되는 행위가 습관이다. 일상력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역시 목표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한 목표를 세워야 하며,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자주 반복해야 한다. 매일 10km 달리기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어떨까? 3일도 채 지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침대 정리하기와 같이 사소한 목표를 세운다면 누구나 쉽게, 매일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목표로 습관의 틀이 잡혔다면 조금씩 달성량을 늘려가거나 목표 방향을 확대해나간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후 운동하기, 침대 정리 후 책 읽기 등으로 확장하고 매일 반복한다. 아주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일상의 시계를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2. 사진, 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해 둔다

뇌 과학 전문가들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일기 쓰기를 꼽는다. 그날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보가 반복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형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날그날의 목표 달성 후 일기로 작성하여 내재화한다면 습관을 형성하는데도 긍정적이다. 스스로에게 다시금 자극을 주며 목표를 이어나갈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일기와 기록물 등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내가 남긴 기록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기록을 이어나가기 위해 챌린지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것은 물론 사진을 찍거나 SNS에 기록하는 방법도 좋다.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기록해두자.

3. 챌린지, 습관, 루틴 형성 앱을 이용한다

스스로는 도저히 힘든 의지박약이라면 외부의 도움을 빌려보자. 요즘에는 습관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시간을 설정해두면 때마다 알림이 울리거나 보증을 걸어두고 목표를 완수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등 여러 방식으로 동기를 자극한다. 또한 물질적인 보상으로 챌린지를 이어나가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 카카오프로젝트100 : 100일 동안 내가 도전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습관 형성 플랫폼이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과 서로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실천보증을 걸고 100일을 완수하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챌린저스 : 아침기상, 운동, 책 읽기 등 나에게 필요한 미션을 선택한 후 참가비를 결제하고 실천 인증샷을 남긴다. 한 번 실천할 때마다 참가비가 환급되며 85% 이상 달성 시 전액 환급된다. 특히 100% 달성 시에는 상금을 획득할 수 있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 루티너리 : 행동 과학 원리에 기반하여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앱. 요일별, 시간별로 습관을 작성하고 해당 습관별로 소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1분, 침대 정리하기 1분 등 세세하게 해야 할 목록을 정리하고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할 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글 전미희

똑똑한 미래 도시를 꿈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디지털 기술은 21세기의 도시 생활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도시의 경제 규모나 발전의 중요한 척도로 고려되는 만큼, 실제로도 우리의 일상을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혁신을 가져올 스마트 시티에서는 최신 ICT를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이전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의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점에서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스마트 시티의 성공 사례로 불리는 바르셀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 시티 바르셀로나, 전 세계가 주목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바르셀로나는 명문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의 연고지, 가우디의 도시, 스페인 최대 항구도시 등 세계적 관광도시답게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기후가 좋고 경관이 아름다워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바르셀로나. 하지만 디지털·도시 전문가들은 바르셀로나에 또 다른 수식어를 붙인다. 이미 다른 국가의 도시들보다 발 빠르게 ‘도시의 스마트화’에 힘쓴 바르셀로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시티의 상징이자 모범 도시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 전체에 약 500km 길이의 광케이블을 구축하면서 스마트 시티 기반을 마련했다. 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도시 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기술 기반의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기를 꿈꿨다. 특히 당시에 버려진 땅이라 불렸던 포블레노우 지역을 첨단 산업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22@Barcelona’ 프로젝트는 도시 재생 사업의 세계적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는 단순히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오픈 데이터와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는 등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윤곽을 드러냈다. 바르셀로나는 기술을 핵심 요소로 하여 도시 구석구석에 사물인터넷과 각종 센서를 연결함으로써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폐기물 관리 등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여기에는 교통, 운송, 전기, 수자원, 폐기물, 법 집행, 학교, 도서관, 병원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바르셀로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도시 인프라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뛰어난 기술을 넘어 시민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

오늘날 기술의 진보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크다. 그렇기에 기술 그 자체만이 스마트 시티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세계가 바르셀로나를 눈여겨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르셀로나의 최우선 과제는 기술적 측면의 스마트 시티 개념을 넘어 올바른 사회 변화를 위해 데이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바르셀로나는 사회적·경제적 정의, 공동체 결속, 윤리, 성 평등 등의 공공 가치를 도시의 성장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궁극적으로 신기술 활용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지식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설계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프로세스’의 스마트 시티는 시민 간 정보 격차를 넓히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르셀로나는 ‘상향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집단 지성을 장려하고 모든 핵심 인물을 도시계획에 참여시켰다. 시민의 수요와 의견을 중심에 두고 있기에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공공 주택과 같은 더 나은 사회정책을 추진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바르셀로나의 전략은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협력적인 경제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앞으로 바르셀로나에서 보게 될 기술 중심의 공공 서비스는 더 많은 참여, 더 깊은 소통, 더 효율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진 커뮤니티가 기반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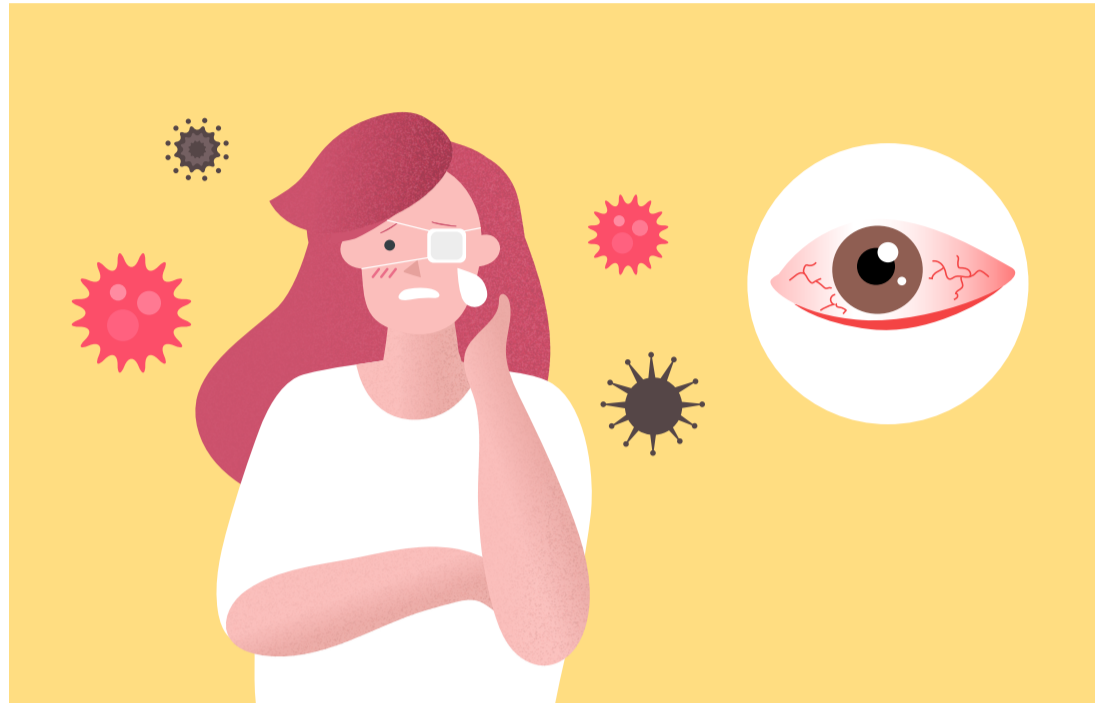
디지털 거버넌스를 향해

스마트 시티가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다.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 등 도시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에 연결하더라도 시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어떤 목적과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면 정보 격차, 사회 불신, 범죄 증가 등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성장한 도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과밀, 오염, 실업, 교통난, 빈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그만큼 기술 발전과 시민 참여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오늘날 코로나19 위기와 각종 도시문제의 답을 스마트 시티 기술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줄 스마트 시티의 방향과 전략이 무엇인지 당산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올 봄여름, 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매년 꽃가루 날리는 봄이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여름이면 유행성 결막염과 아폴로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급증한다.
전염성 강한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감염 시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을 기억해두자.



봄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이 많이 날리는 봄철에 특히 환자가 많아지는 질병으로, 동물 털이나 집먼지진드기 등으로 인해 발병하기도 한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심하게 가렵고 충혈되며 눈 안에 끈끈한 실 같은 점액성 분비물이 생겨 불편을 유발한다. 결막 부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한 경우 젤리 같은 물질이 올라오거나 눈꺼풀 안쪽에 크고 작은 유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난시 및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가려움과 부종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3~4회 눈을 냉찜질하면 도움이 된다. 치료를 위해서는 항히스타민 등 항충혈 효과가 있는 안약을 점안하거나 인공 누액을 자주 넣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과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때는 보안경 등을 착용해 눈을 보호한다. 외출 후에는 바로 세안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집먼지진드기와 곰팡이 등을 없애기 위해 집을 자주 청소하고, 이불과 베개, 카펫 등도 수시로 세탁하고 소독한다.



덥고 습한 여름에 유행하는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눈병

유행성 각결막염은 유행성 결막염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병한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 하나인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이며, 결막뿐 아니라 각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 각결막염이라고 한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주일가량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한다. 보통 한쪽 눈에서 시작해 잠복기 후 다른 쪽 눈으로 옮겨간다. 치료를 해도 처음 일주일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가 보통 2~3주 후부터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리면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많이 나며 심한 이물감과 눈부심 등이 나타난다. 귀밑과 턱밑 임파선이 부어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감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 고열이나 설사, 인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아폴로눈병은 주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유행하는 바이러스 결막염의 하나로 출혈성 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도 한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시기에 처음 발생해 아폴로눈병이라 부르게 됐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합병증 없이 저절로 좋아지지만, 헤르페스 각막염이나 포도막염 등 눈에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초래하는 질환들과 증상이 비슷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마찬가지로 손을 자주 씻고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을 비비는 습관은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눈이 가려울 때는 차가운 물수건 등으로 냉찜질하거나 찬물로 눈을 씻는다. 주변에 눈병 환자가 있는 경우 세면도구나 물품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감염되었다면 눈이 가렵더라도 손으로 비비지 말고 티슈나 화장솜 등으로 눈물과 눈곱을 닦아내고, 다중 이용 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안약은 감염된 눈에만 점안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또 술을 마시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므로 음주는 절대 삼간다.

정리 전하영 참고 자료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늘밝은성모안과 안질환 정보 외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기본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 관련 법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견에 의한 각종 사고도 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인의 수칙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이라면 반려견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외출 시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반려동물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목줄 또는 가슴줄은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어린 반려동물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이 안아서 외출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 시 목줄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입마개도 씌워야 한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각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이러한 맹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반드시 씌워야 한다. 그렇지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다.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외출하거나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등에 출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다쳤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반려견의 소유자(반려인)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반려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하다. 반려인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과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액은 보통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기왕 치료비),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치료비(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위자료)를 합산한 액수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도 한다.

법원은 만 5세 11개월이던 아이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려다가 그 반려견에게 안면부를 물린 사고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려고 했던 점, 사고 장소에 아이의 보호자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견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508949 판결).



반려견에 의해 다른 반려견이 다친 경우

최근에는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이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액은 보통 피해 동물의 치료비와 피해 동물이 상해를 당함으로써 반려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법원은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반려견이 비록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반려견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4698 판결).

공원을 거닐다 보면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풀려 있는 반려견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반려견을 자유롭게 뛰어 놀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려는 반려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좋은 가구, 언제나 새것처럼

우리 집 가구 수명 연장 비법

가구는 한번 사면 집안에 오래 두고 쓰게 되는 물건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손질이 중요하다.

가구를 훼손 없이 새것처럼 유지할 수 있는 재질별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보자.



처음 품질 그대로, 원목 가구 관리법

나무의 자연스럽고도 따뜻한 느낌을 그대로 간직해 많은 이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원목 가구. 오래 쓸수록 세월의 흔적과 함께 더욱 멋스러워지는 것도 원목 가구의 특징이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수축하고 팽창하거나 나무가 갈라져버리기도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목 가구를 변형 없이 오래 사용하려면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실내 온도는 18~23도, 습도는 35~4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습도 조절을 위해 겨울철에도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

원목 가구를 배치할 때는 벽에서 10cm 정도 여유를 뒤 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가구의 변형이나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배치 시 가구의 수평을 잘 맞춰야 뒤틀림이나 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햇빛이 바로 닿는 곳에 가구를 둘 경우 낮에는 꼭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원목 가구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칠을 하지 않은 원목 가구는 물걸레질하지 않고 마른걸레나 천에 오일을 묻혀 닦아준다. 간단한 오염을 제거 할 때는 살짝 젖은 천으로 닦아낸 후 바로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한 목재 가구의 경우,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마른 천으로 닦아내게 되면 가구에 작은 흠이 생기고 그 안으로 습기가 들어가 가구가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먼지떨이로 먼저 먼지를 털어낸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준다. 주기적으로 나뭇결을 따라 가구 전용 왁스나 오일을 발라주며 관리하면 원목 가구를 변형 없이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단, 식용 오일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가구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물기 주의! 철제 가구·가죽 가구 관리법

원목 가구보다 차가운 느낌으로 실내에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철제 가구. 최근에는 철제 가구가 다양한 컬러로 출시돼 포인트 가구로도 사랑받고 있다. 철제 가구는 튼튼함이 장점이지만 표면에 스크래치가 날 경우 녹이 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철제 가구의 관리는 마른 헝겊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것이 기본이다. 물기가 많은 걸레나 표면이 거친 헝겊, 수세미 등으로 닦는 것은 좋지 않다. 마른 헝겊만으로 오염이 잘 제거되지 않을 때는 금속 연마제를 사용한다. 철제 가구에 녹이 슬어 손 부분이 있다면 고운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녹을 없애고 녹 방지액을 바른 후 래커로 칠해준다. 물기를 피해야 하는 점은 가죽 가구도 마찬가지다. 가죽은 변질이 쉬우므로 손질할 때 물걸레 대신 마른 천을 이용하고, 2~3개월에 한 번 정도 가죽 전용 크림으로 닦아주면 좋다. 물이 묻으면 바로 닦아내고, 알칼리성 세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죽과 가죽이 맞물리는 작은 틈새 안에 쌓인 먼지를 방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가죽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천으로 꼼꼼하게 먼지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열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해야 가죽의 탈색과 변색을 막을 수 있다.



오래도록 매끈하게, 대리석 가구·멜라민 가구 관리법

특유의 세련되고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주방 식탁으로 특히 사랑받는 대리석 가구. 아름답고 튼튼하지만 지속적인 열을 가하면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리석 식탁 위에 뜨거운 음식을 올릴 때는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자.

화강암이나 대리석 재질의 가구를 손질할 때는 스펀지나 부드러운 천에 주방세제나 물을 묻혀 닦아준다. 클렌징을 사용하거나 표면이 거친 천을 이용할 경우 코팅 부분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대리석 가구에 스크래치가 생긴 경우, 물에 반죽한 베이킹소다를 미세한 경철솜에 묻힌 후 스크래치 부분에 꼼꼼하게 발라준다. 그 후 물로 반죽을 닦아내고 자연스럽게 말려주면 스크래치를 줄일 수 있다.

멜라민 가구는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아도 손상되지 않을 만큼 견고해 비교적 관리가 쉬운 편이다. 가구가 새것일 경우 중성세제로 닦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오래되어 흠이 생긴 경우 스펀지에 소량의 액체 클리너를 묻혀 살살 닦아낸 후 물걸레질하면 흠집 속 때를 제거할 수 있다. 멜라민 가구에 때가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구용 왁스를 발라두면 된다.



더 알뜰하게! 때 빼고 광내기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방안 벽지는 물론 가구 곳곳이 얼룩덜룩 낙서로 채워지게 마련이다. 아이의 예술 활동에 속수무책 스케치북이 되어버린 가구를 회생하고 싶다면 간단히 치약을 이용해보자. 가구 위 아동용 크레용으로 칠한 낙서는 부드러운 천에 치약을 묻혀 닦으면 깨끗이 지워진다.

오래되어 때가 끼고 지저분해진 가구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이용해 손질할 수 있다. 알칼리성이 된 상한 우유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 가구를 닦으면 묵은 때가 없앨 뿐 아니라 은은하게 윤을 내는 광택제 역할을 한다. 오염된 가죽 소파 등을 닦을 때도 유용하다.

가구에 조그만 흠집이 생겼을 때는 흠이 난 자리에 같은 색의 크레용이나 색연필 등을 칠한 후 그 위에 매니큐어를 발라주자. 간편하게 본래의 상태처럼 복구할 수 있고 흠집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글 전하영

희망을 향한 여정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도 묵묵히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친 들판에 씩씩하게 돌아난 미나리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충열 관리이사 추천 영화”

<미나리>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가 최근 전 세계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리 아이삭 정)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다. 1980년대,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가족이 갖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처럼 곳곳하게 미국 땅에 뿌리내리는 이야기를 담았다. 미국 이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공감할 만한 보편적 울림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순자(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 윤여정은 노련하고 원숙한 연기력으로 미국배우조합 시상식(SAG Awards)과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비록 미국 자본으로 제작된 미국 영화이지만, <기생충>에 이어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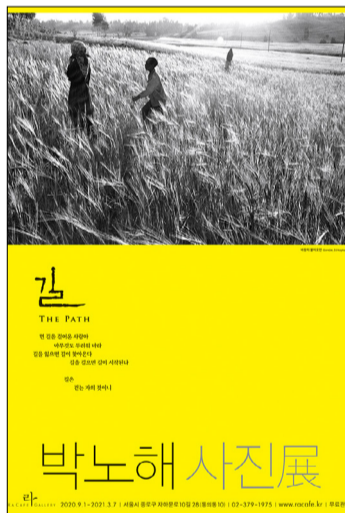
정이삭 감독 | 윤여정, 스티븐연, 한예리 등 출연 | 2021.3.3.



희망을 춤추는 황혼의 발레 꿈나무
창작가무극 <나빌레라>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든 못다 이룬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까? 서울예술단의 창작가무극 <나빌레라>는 도전을 시작한 일흔여섯 노인 덕출과 방향을 시작한 스물셋 청년 채록이 만나 '발레'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게 되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며, 최근 배우 박인환과 송강 주연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된 바 있다. 창작가무극 <나빌레라>는 여기에 풍성한 뮤지컬 음악을 더해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풀어냈다. 인생의 황혼기에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특별한 도전을 시작한 덕출의 용기는 관객들에게 따뜻하고도 먹먹한 희망과 감동을 전달한다.

서울예술단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2021.5.14.~5.30.



길은 걷는 자의 것
박노해 사진전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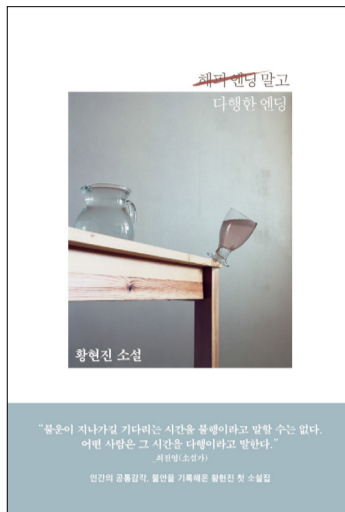
“먼 길을 걸어온 사람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길을 잃으면 길이 찾아온다.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된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니.”

- 박노해 사진에세이 <길> 서문 중

지난 20여 년간 유랑자의 삶을 걸어온 시인이자 사진가, 노동·생태·평화운동가 박노해가 다양한 길 위의 풍경과 삶을 37점의 흑백사진 속에 담아냈다. 인류 최초의 문명길인 차마고도부터 안데스 고원길, 눈 덮인 산길, 끝없는 사막길, 정겨운 골목길, 설레는 귀향길, 할머니의 마지막 순례길, 길마저 끊긴 분쟁의 땅까지. 전시는 절망과 희망이 뒤엉킨 길과 삶에 관한 작품들을 따라 우리를 저마다의 다른 길로 안내한다. 박노해 사진전 <길>은 종로구 통의동 라 카페 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노해 | 라 카페 갤러리 | 2020.9.1.~2021.6.6.



불안과 희망의 담담한 동행
<해피 엔딩 말고 다행한 엔딩>

순탄하기만 한 삶을 사는 이는 없다. 불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불안은 언제나 우리 마음 어딘가에 함께한다. 소설 <해피 엔딩 말고 다행한 엔딩>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뜻하지 않은 불행 속에서 곡절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은 시련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심을 잡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고자 한다. 소설은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해피엔딩이 아닌, 불안과 공존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다행한 엔딩’을 향해 가며 우리 안의 ‘불안’을 다독여준다. 그리고 불안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작은 희망에 관해 여운을 남긴다.

황현진 | 문학동네 | 2021.3.31.

해외 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 팀을 향해

해외부동산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해외부동산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실사 제약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지 파트너들과의 적극적 소통과 전략적 투자 운용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왼쪽부터) 정서환 과장, 한경수 과장, 송창은 팀장, 권혁범 과장, 심호성 대리

분산 투자 통한 안정적 수익률 제고

해외부동산팀의 하루는 밤새 현지 운용사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투자 약정한 금액에 대한 인출 요청이 있는지, 기투자 건에 대한 상환이나 배당 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재무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이어 운용사와 비대면 미팅을 통해 기투자한 자산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과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한다. 회원의 소중한 자산을 수탁해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오류가 없도록 수행 중인 업무를 꼼꼼히 반복 확인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부동산팀의 최우선 목표는 역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섹터별로 고루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꾸준히 시장조사를 진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외부동산팀은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부동산 투자신탁(REITs)에 투자해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행정공제회 해외부동산팀은 시장에서 신뢰도 높은 투자자로 인정받고자 현지 운용사 및 파트너와 협업 시 관심 지역과 섹터, 목표 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투자 제안이 들어오면 확실히 투자한다. 덕분에 현재 세계 유수의 파트너들과 상호 신뢰 관계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해외부동산팀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해외 연기금과의 JV(공동투자)가 있다. 미국 최대 교직원연금(CalSTRS)을 시작으로 텍사스 교직원연금(TRS), 덴마크 연기금(PFA)과 공동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다. 또 안정적인 부동산 대출부터 물류,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진행 중이며 성과도 양호하다. 2020년에 매각을 완료한 독일 오피스 건물 총 1,770억 원을 투자해 매각 차익만 1,000억 원 이상 수취하며 수익률 15.43%를 달성한 바 있다.

제약과 변화에 맞춘 전략적 투자 운용

부동산 투자에서 자산 실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은 해외부동산팀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부동산팀은 이러한 제약과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조금씩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대면 미팅이 제한된 이후 발 빠르게 화상회의 장비를 구축해 현지 유관 기관과 소통을 원활하게 이어가며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단일 자산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성 투자는 지양하고, 기존 투자 건 중 성과가 좋은 자산에 대한 리업(re-up) 방식의 안정적 투자 위주로 진행 중이다. 또 distressed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포착해 자산 정상화를 통한 고수익을 추구하는 등 현재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지역별 투자 비중을 보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 금융 위기 발생 시 가장 먼저 회복하는 미국 위주로 투자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포트폴리오상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45%, 유럽 40%, 아태 지역 15%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섹터별 비중 또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반영해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오피스 수요 감소에 대비해 오피스 비중을 축소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성장하고 있는 물류와 경기변동 시 상대적 안정성이 높은 임대주택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Mini interview

해외부동산팀은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소통을 통해 유용한 현지 시장 정보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미팅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실사 대신 화상회의나 문서로 대체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실한 해외 부동산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 팀은 현재 거의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 업무는 성과가 수치로 정확히 나오기에 그만큼 부담이 따르지만,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매우 크죠. 앞으로 해외 부동산 분야에 있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부동산팀 **송창은** 팀장

글 전하영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훌륭한 투자 자산

뛰어난 접근성과 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국내 자산 한 건과
주요 상업 지구 중심지에 자리한 우량 해외 자산 한 건을 소개한다.



우수한 입지와 최신 물류 시스템

평택 물류센터

행정공제회가 매입·운영 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평택 물류센터는 2019년 4월 준공한 평택항 인근의 대형 복합 물류 시설이다. 대지면적 약 3만6,000㎡(1만1,000평), 연면적 약 12만2,000㎡(3만7,000평)에 달하며 1~2층은 저온 창고, 3~5층은 상온 창고로 구성된다.

평택 물류센터는 내수와 수출입이 모두 용이한 위치에 자리할 뿐 아니라 수도권과 중부권 접근성이 우수해 물류센터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양호한 입지가 장점이다.

건물의 스펙 또한 우수하다. 각 층마다 접안이 가능하고, 10m의 높은 층고와 2.0tons/㎡ 이상의 높은 바닥 하중을 갖췄다. 램프 진입로는 40ft 컨테이너 화물차 운행을 고려해 설계했으며, 단열 및 방수 성능이 우수한 성형 지붕 시스템을 적용하고 최신 화재 방지 시설(공기 흡입형 화재 감지기)을 설치했다.

현재 평택 물류센터는 약 98% 내외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현재 약 80%의 면적을 쿠팡에서 사용 중이며, 향후 소비 지역 거점 확보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증평 목적으로 안정적 임차가 예상된다.



시애틀 남부의 우량 멀티패밀리 자산

Avana Star Lake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 지역 페더럴 웨이(Federal Way)에 위치한 아바나 스타 레이크(Avana Star Lake)는 총 750개의 가든 스타일 세대로 구성된 우량 멀티패밀리 자산이다. 세대 규모에 맞게 야외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바비큐장, 영화관까지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췄으며, 앞으로 총 525세대를 레노베이션할 계획이다.

본 자산이 위치한 페더럴 웨이 권역은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이 없고, AXIO에 따르면 향후 5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5.04%로 시애틀 서브마켓(submarket) 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애틀 시내까지 30.5km, 다코마 시내까지 24km, 켄트 시내까지 8km 내에 위치해 주요 상업 지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켄트 지역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는 3년 안에 4msf에 달하는 면적을 확장할 계획으로, 2만5,000명 이상의 고용 인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2019년 6.2%를 달성했으며, 2024년까지 3.3%(미국 내 2위) 내외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예상된다.

본 자산의 현지 운용사인 그레이스타(Greystar)는 1993년 설립 이후 AUM USD 37 Billion을 달성했으며, 개발 중인 자산의 AUM은 16 Billion에 달하는 미국 내 1위의 대형 멀티패밀리 전문 자산 운용사다. 또 매입 · 운용 · 자산 관리 · 개발 등 모든 분야의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 · 유럽 · 아시아 등 전 세계 190개 이상의 시장에 진출해 있다.

한편 미국의 멀티패밀리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 속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과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전망이다. 임대주택의 가장 큰 수요자인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집중된 인구 분포, 제한적인 주택 공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와 주택 비용 부담으로 인해 멀티패밀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 전하영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21년도 제2차 대의원회 개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 3월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인터시티에서 박준하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5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안)를 의결하고, 2021년도 자산운용계획 및 경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도 결산 보고에 따르면 총자산은 16조 3,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14억 원을 실현하였다.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특히 지급준비율은 103.8%로 전년 대비 2.4%p 크게 상승하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21년에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약 17조 6천억 원의 자산규모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체계화된 리스크 관리로 당기순이익 실현과 지급준비율 상승 등 성과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박준하 이사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0만 회원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대의원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별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55명, 공제회 이사장 1명 등 총 56명으로 구성되며, 정관의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사업계획, 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한다.

퀴즈를 풀면 상품권이 쏟아집니다!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POBA LIFE>



<POBA LIFE> 10호

독자 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Q. 폐광 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유리 산업으로 되살리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유리 박물관의 이름은?

A. ② 도계유리나라

당첨자

김영○(8870) 김현ㄱ(9380) 이현ㄱ(1253) 김상ㄱ(7653) 진영ㄴ(8634) 박주○(5684)
성덕ㅎ(8319) 정귀○(1484) 최송ㅎ(8966) 김현ㄱ(3757) 이충○(9173) 문구○(7822)
박경○(3151) 박상ㄱ(3527) 손이ㄱ(1025) 김은ㄱ(5230) 이수○(9844) 박경ㄱ(1484)
전세ㅎ(0135) 최지ㅎ(7818)

독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자 퀴즈 당첨 선물은 퀴즈 참여 시 기입하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POBA LIFE> 11호

애독자를 위한 독자 QUIZ!

Q. 서울시가 지역(농어촌)과 서울의 상생 및 교류를 위해 세운 매장으로, 전국 중소농가의 우수 농특산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상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① 서울상회 ② 생생상회 ③ 상생상회

웹진 메인 페이지 상단 '독자 퀴즈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퀴즈 이벤트 상품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